

미세먼지 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무색

위반차량 출근 뒤 소속기관 인근 아파트·골목 주차 민간 참여 저조...“과태료 부과·체계적 홍보 필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청사내 진입 대신 인근의 아파트나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돼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릿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제 위반 차량 직원들은 소속기관 앞까지 주행한 뒤 인근 주차장과 아파트, 갓길 등지에 주차를 하고 출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청 주차장 입구에서는 주차관리직원 5명이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며 짝수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지하주차장에는 전날 차량을 주차한 채 퇴근한 직원들의 것으로 보이는 ‘짝수 번호’ 차량이 일부 눈에 띄었으나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 었다.

일부 공무원은 출입로 앞에서 부제 위반 차량을 되돌리며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교육청 인근 도로에는 ‘짝수 번호’ 차량 10여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일부는 교육청 직원의 차량으로 추정됐다.

청사 내 주차장에는 전날 주차한 ‘짝수 번호’ 차량들이 서 있었으며, 담당 직원은 주차에 연絡해 차량 이동을 요청했다.

한 교육청 간부 직원은 “간혹 차량 2부제 사실을 잊거나 5부제로 착각, 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적했지만 ‘짝수 번호’ 차량이 청사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의무경찰이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한 차량 15대 가량이 차량 운행 뒤 안내를 받아 버섯이 경찰서 주변에 주차됐다.

남부경찰서 주차장도 긴급상황을 대비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홀수 번호’ 차량만 서 있었으나, 인근 갓길·아파트 등지에는 부제를 위반한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북부경찰서 주변에도 갓길 주차된 ‘짝수 번호’ 차량이 보였다. 경

찰서를 방문한 일부 민원인들은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의무경찰과 입씨름을 벌였다.

한 민원인은 “민간분야는 자율시행 아니냐. 급한 민원이 있는 시민까지 막아서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순천·여수시청에서도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으나, 머리 안내를 받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2부제 조치 안내판을 보고 출입문 앞에서 차량을 되돌렸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비상저감 조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이다”며 “특별법 상 과태료 처분을 실제로 내려야 차량 2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2부제 등 저감조치의 효과를 높고 회의론이 많다. 당국이 조치 별 저감효과를 입증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단기·중장기 대책까지 제시해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참된 일꾼 뽑으세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들이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금고동의 한 소 농가에서 소 ‘치머 든든한 일꾼을 뽑는 조합장선거가 되기를 기원하며 축협 조합원들과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폭염’이 전남 축제 달력 바꿨다...봄·가을 축제로 변경 잇따라

강진청자·고흥항공우주 등 일부 축제 관람객 감소에 변신 시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축제 시기에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남 시·군축제도 개최시기가 잇따라 조정되고 있다.

‘폭염’이 축제 달력을 바꿔놓은 셈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7~8월 열렸던 강진청자축제가 올해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가을 축제’로 변신을 시도한다.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열렸던 축제가 폭염으로 인해 기반 시설물 설치비 증가, 각종 폭염피해 발생, 관람객 수 감소, 청자판매액 감소 등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축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무더위 속에 강진청

자축제 관람객은 21만명으로 전년(32만명)보다 11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21일부터 8월1일까지 열렸던 고흥우주항공축제도 폭염 앞에 ‘여름 축제’ 간판을 내렸다.

지난해 관람객은 5만7000여명으로 전년 8만1000명에 비해 2만5000명 감소하자, 올해 5월 3~5일로 개최시기를 앞당겼다.

고흥 농동바다불꽃 축제 역시 8월에 열렸던 것이 5월 중, 거금도 아름다운 밤 행사도 7월에서 10월 중으로 각각 시기를 조정했다.

8월 개최된 영광전일염젓갈축제도 올해부터 젓갈 수요가 많아지는 김장 시즌을 앞둔 10월로 개최시기를 옮겼다.

지난해 8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린

순천문화제달빛야행 역시 4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시기를 변경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 시기에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하면서 관람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일부 축제의 개최시기 조정됐다면서 “지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말다툼 중 여친에 흥기로 행패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말다툼 도중 흥기로 난동을 피워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9·여)씨에 흥기를 들고 위협,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팔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4년 가량 동거한 사이로 최근 자신이 유혈입소에 다녀온 일로 시비가 돼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끈에 부역에 있던 흥기를 들고 위협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신변 보호 조치가 내릴 방침이다.

광주 대인시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광주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5일 오전 6시33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가게 6곳이 타고 그을렸다. 화재 당시 주변에 상인·손님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진화작업에는 소방차 40여대, 소방관 100여명이 투입됐다.

문이 잠겨있던 수산물 가게 내부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도소 보내달라’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에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3만6000원 상당의 양주·맥주 등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에 두 달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무전취식 혐의로 50차례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다시 잘 살아보려고 전남의 한 열전에서 일도 시작했지만 다리를 다쳐 그만뒀다. 교도소가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도소로 보내달라’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지업소서 수천만원 훔친 20대 3명 구속

외국인이 운영하는 퇴폐 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1월부터 2월까지 수원, 인양, 평택, 서울 등 수도권의 외국인 여성이 일하는 퇴폐 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휴대전화 등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 혼자 있는 원룸 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 업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강제출국 등을 우려해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모의했다.

김포 유산군 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경기 김포의 한 유산군 제조·판매기업 공장 증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발효탱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7분께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있는 한 유산군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B(68)씨가 2 규모의 유산군 발효탱크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증설 현장에 유산군 발효탱크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